재난관리, 늦추지 말아야 할 최우선 과제

재난을 뛰어 넘는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최남희 _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소장

들어가는 말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세상이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한 믿음의 밑바닥에는 그러한 일들은 국가의 책무이고, 전문가들이 어련히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대형 참사나 재난은 국가적 차원의 전략만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재난에 대한 대응과 책무가 국가나 행정기관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은 여럿이 힘을 모으고 일상적 행동으로 준비 되어 있어야 수월하게 겪을 수 있다는 말이다. 경주의 지진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일이며,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함께 당하고 겪어야 하는 고통이다.

태안 앞바다에 엄청난 기름이 쏟아지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이 정말 그들만의 일인가. 주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허둥대고 서로 믿지 못하며 갈등이 증폭될 때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100만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었으나 그들의 행동은 산만했고 조직적이지 못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또는 재난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비단 태안만의 일이 아니라 대형의 자연재난과 대형 참사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똑 같이 반복된다. 해당 지역의 역량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존한다. 따라서 피해 지역의 특성과 요구와는 무관하게 재난이 복구되고 재난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된다.

세계는 지금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은 위험요소로 들썩이고 있다. 대형자연재난의 발생 빈도가 늘었고, 사회적 재난과 인적 재난 또한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은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니다. 우

리 지역은 안전한가? 또한 자연의 조화로 일어난다고 믿었던 엄청난 사태들은 그동안 위험한 지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완벽하게 안전한 사회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산업화와 개발로 이루어진 사회 기반시설과 생활 기반 시설들은 일정한 정도의 안전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오래전부터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는 기후 변화의 현상은 자연재난 또한 대형화시키고 있다. 가뭄과 홍수, 혹한과 혹서 등은 모두 재난의 일종이다. 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교해진 정보화 시스템은 어느 한 순간 우리에게 위험으로 닥쳐올지 모른다. 자동화된 생활 기반 시스템은 에너지가 정지되는 순간 우리의 삶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재난 없는 사회를 꿈꿀 수 있을까? 가상의 세계에서는 물론 재난 없는 사회를 그려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에서 실제로 재난은 인간의 삶과 함께 얽혀 있다. 재난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어느 정도의 크기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그에 대응하고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이라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만 노력해서는 안된다. 피할 수 없는 재난이라면 재난을 쉽게 겪을 수 있어야 하며 또 다른 재난이 닥쳤을 때 똑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난에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

왜 지역사회 리질리언스인가?

재난과 재해가 없는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 자연 현상에 의한 재난 뿐 아니라 산업화의 결과로 일어나는 위험의 요소들이 언제나 우리 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그러한 위험을 간과하거나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을 뿐이다. 태풍이나 홍수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엄청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생계에 곤란을 겪을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없었다. 또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수련회에서 겪었던 참사는 세월호보다 희생자가 적었다고 해서 별일이 아닌 것인가? 이러한 일들은 먼 곳의 남의 일어나 불행이 아니라 나의 일이며 우리 가족의 일인 동시에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의 문제이다. 이러한 사건과 자연재난 만이 문제인가. 그도 아니다. 90년대 중반 많은 중산층의 보통사람들을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시켰던 외환 위기는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사회적 위기 재난이었다.

이제 재난은 특정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국지적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공통의 문제가 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의 시대에 재난관리와 위기관리는 특정 집단의 전문가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물론 모든 국민이 재난관리와 위기관리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험의 상황이 되었을 때 허둥대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생활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 탄력성의 큰 그물망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러한 탄력적 그물망은 한 사람의 능력이나 한 집단의 역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 하나로 묶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사회 탄력성 구축은 피할 수 없는 재난이라면 보다 수월하게 서로 협력하고 함께 재난에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데에 있다. 또한 재난의 폐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재난의 충격으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이전의 일상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재난 이전 보다 더 안전하고 탄탄한 사회적 토대를 만들고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탄력적인 경우 충격 흡수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하여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축적할 수 있다. 사람들은 서로 신뢰하고 해당 지역의 자원과 취약성을 인식하고 대처할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세계 문명사를 돌이켜 보면 인류는 재난 통해서 그 전보다 더 강한 사회를 만들어왔다. 재난이 잦아지고 강력해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의 더욱 탄탄한 그물망을 짜는 것이다.

지역사회 리질리언스란?

탄력성(resilience)라는 말은 원래 사람들의 성장과 관련해서 사용되었다. 한 예로 하와이의 가난한 아이들이 극심하게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반 어린이들과 같이 아니 어쩌면 더욱 강인하고 허약하지 않은 사람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인간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Werner, 1973). 그들은 몇 가지의 긍정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강한 탄력성을 가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가운데 하나는 그들에게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 필요한 단계를 하나씩 밟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두 번째의 요인은 자신의 능력과 장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말한다. 세 번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능력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 마지막의 요소는 자신의 강렬한 충동이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탄력성의 요인들은 타고 난다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개발되고 향상되는 능력이다. 물론 이러한 탄력적 자질은 근본적인 인간의 성향이지만, 그 크기와 역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키워질 수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를 정체되고 고정된 조직이 아니라 생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역동적 삶의 현장으로 고려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똑 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 리질리언스의 중심적 개념이다. 심리학적 성장과정에서 추론된 탄력성의 개념은 지역사회에 적용될 때 몇 가지 시각으로 구별하여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탄력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정서가 가장 중요하다. 긍정적인 정서는 주변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우리 함께'라는 의식은 삶과 세상을 긍정적이고 밝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 자신의 심리적 탄력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탄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며 동시 자신의 역량과 모자라는 부분 그리고 타자의 역량과 모자라는 부분을 함께 엮어서 넓고 탄탄한 그물망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본적인 탄력적 역량망으로 지역사회 리질리언스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이 항시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내는 공학적인 탄력성과 새로운 현상의 출현과 변화에 적응하면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태학적 탄력성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협치가 이루어지는 사회 생태학적 탄력성은 매우 중요한 그물망의 고리로서 함께 작동해야만 한다.

실제로 인간사회에서 완전한 안전성이란 무의미한 희망일 수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위험과 맞닥뜨리고 그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이루어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재난과 재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역시 우리들 스스로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고 인간의 삶을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자체의 탄력성 즉 리질리언스의 구축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확립 방안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이들을 연계하는 일이다. 개별 자산의 연속적 연계는 단순한 자산의 가치를 넘어서 더 큰 이익을 이끌어 내는 자본으로서 작동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안전이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우리 동네”의 안전과 이익이 내면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통과 연계를 통해서만이 개별 자산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본화가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구축에서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솔직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탄력성의 중요한 토대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본이 구축되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람의 역량이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연계와 신뢰를 확립할 수 있는 공동체 내의 노력이 가장 우선적 과제이다. 이웃들이 서로 믿을 수 있고, 행정기관을 믿을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신뢰한다.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긴밀한 결속감을 갖도록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공동의 스토리를 만드는 일이다. 사람들은 이야기의 본능이 있다. 필요한 것과 부족한 것을 나누고 소통하는 동안 서로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친근감을 느끼고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과 타인에게 필요한 것을 공감하고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연스럽게 체득한다. 이때 마음에 두어야 할 일은 상대를 존중하고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이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 공동체 탄력성 구성은 지역 구성원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스토리텔링은 관계를 맺고 서로 믿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인으로는 참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젯거리를 직시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하며, 살아가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와 어려움을 수용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야기 하기는 그들 모두에게 공동으로 필요한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힘들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취해야 할 결정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공동의 스토리텔링은 엄청난 상실 뒤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과정은 자기 확신과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지역 공동체의 열린 이야기하기의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재난을 비롯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수월하게 벗어나고 오히려 재난을 통해서 더 나은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탄력성을 확립하게 된다.

공동체 스토리텔링에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키 포인트는 첫째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보와 행동이 학습될 수 있는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둘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위험에 대해서 솔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결핍과 어려움의 시기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 대한 능력을 믿고 어려움을 믿고 강인하게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나가는 말

피할 수 없는 재난이라면 효과적으로 재난을 겪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즉 지역사회 자체가 탄력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선 탄력적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원의 목록화가 필요하다. 즉 인간 자본, 시설 물자 등이 망라된 자료 목록 구축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록은 최소한 일년에 한번 이상씩 업데이트 되는 것이 좋다. 여기에 덧 붙여서 사람들의 역량을 목록화하고 그들의 위치와 접촉방법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인과 시민 그리고 각 조직들이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핍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획이 필수적이다. 효과적으로 탄력적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계획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누구나 편안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긴장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시작이 좋다. 탄력성은 확실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적용 가능한 행동을 습득하도록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공동체 탄력성에 핵심은 협력과 협동이다. 따라서 구성원들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구성원 모두의 역량이 풍부해질 때 지역사회 공동체는 재난으로 엄청난 시련을 벗어나고 쉽게 일상적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시대는 지역 공동체의 탄력성을 요구하고 있다.